아기호랑이 1년 ‘프로 사냥법’ 배웠다

8월 SK전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 멀티히트…팀서 ‘이치로’로 통해
체력·웨이트 바탕 ‘내 것 있어야 한다’ 교훈…내년 성적 더 나아질 것

KIA 내야 기대주 홍종표

“행운의 시즌”이었다면서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KIA 타이거즈의 ‘막내’ 홍종표가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면서 일찍 2021시즌 준비에 나섰다.

아쉽게 ‘가을잔치’ 꿈이 무산됐지만, KIA 팬들은 시즌 중반 뜨거운 순위싸움에 웃을 수 있었다. ‘신예’들의 활약도 팬들에게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됐다.

홍종표도 팬들을 웃게 한 선수 중 하나다.

강릉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홍종표는 7월 8일 KT전을 통해 데뷔전을 치렀다. 시즌 초반 대주자와 대수비로 경험을 쌓은 그는 8월 14일 SK전에서 첫 선발 출장에 나섰다.

이날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홍종표는 데뷔 타석에서 바로 안타를 만들었고, 5회 멀티히트까지 장식했다.

센스있는 타격을 앞세운 그는 윌리엄스 감독과 선배들에게 ‘이치로’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홍종표는 “아쉽기도 하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든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잘했다는 생각도 든다”며 자신의 첫 시즌을 자평했다.

이제 막 프로를 경험한 홍종표는 KBO리그의 쟁쟁한 스타들과 동료와 적으로 같은 그라운드에서 뛴 게 가장 좋았다.

홍종표는 “TV에서 보고 좋아했던 선수 타석에 들어서는데 내가 수비하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와, 내가 프로에서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키움 이정후 선배를 좋아했는데 고척에서 2루수로 있었는데 2루 주자로 만났다. 신기했던 것 같다”고 웃었다.

이어 “처음에는 실수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경기를 했다. 선배님들이 해주시니까 열심히만 하자고 했는데 뛰면서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며 “더 절실하게 하지 못한 게 아쉽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마음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고 아쉬워했다.

열심히만 했던 신인 홍종표는 섬세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홍종표는 “체력과 웨이트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야구 선수니까 기술적인 것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내 것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힘과 체력만으로는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좋았을 때 느낌을 지나치지 않고 더 메모하고 신중하게 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시즌 들어가면 내 것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매 경기가 홍종표에게는 특별했다. 자신의 좋았던 순간들을 계속 찾아보기도 했다.

홍종표는 “잘 쳤던 것 수비 깔끔하게 했던 영상들은 저장해놓고 계속 봤다”며 “3안타 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쳤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됐다. 감이 안 좋은데도 알아서 맞아주기도 했다”고 웃었다.

김태진의 끝내기 안타가 나왔던 9월 27일 롯데전은 가장 아쉬운 순간이다. 이날 홍종표는 1-1로 맞선 연장 10회 1사 만루에서 김호령의 대타로 타석에 들어섰다. 윌리엄스 감독은 컨택 능력이 좋은 홍종표를 선택했고 결과는 1루수 직선타였다.

홍종표는 “그 순간이 올해 가장 아쉬웠다. 차라리 삼진을 먹더라도 앞에서 하나만 노리고 쳤어야 했는데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제일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아쉬움이 많은, 배울 게 많은 어린 선수지만 이번 마무리캠프를 통해서 홍종표는 ‘선배 대열’에 합류했다. 내년 시즌 입단을 앞둔 2021신인들이 훈련에 합류하면서 홍종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홍종표는 “운동장 나올 때부터 기분이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며 “막내였을 때는 형들 따라만 하면 됐고, 따라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게 보이고 다르게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선배가 된 소감을 밝혔다.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도 언급했다.

홍종표는 “시즌 마지막에 2군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서운하기보다는 내년을 더 생각했던 것 같다. 끝까지 정규시즌 마무리 못 한 것은 아쉽지만 올 시즌은 행운이었던 것 같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 특히 타격에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안타 많이 치고, 출루도 많이 하고 득점에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혜진 ‘해피엔딩’

KLPGA 시즌 최종전 우승
12언더파 204타 ‘통산 10승’

한국여자골프(KLPGA)투어 최혜진(20)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 이라는 퍼즐 조각을 맞췄다.

최혜진은 15일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SK텔레콤·ADT캡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정상에 올랐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하고도 우승과 인연이 없어 애를 태웠던 최혜진은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무관 탈출에 성공했다.

아마추어 때 거둔 2승을 포함해 KLPGA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오른 최혜진은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아 상금랭킹도 5위(5억3827만원)로 끌어 올렸다.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지은 최혜진은 사상 처음으로 우승 없이 대상을 받는 민망한 상황을 극적으로 벗어나 기쁨과 감격이 더했다.

안송이(30)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선 최혜진은 5번 홀(파5) 샷 이글로 단숨에 선두로 도약했다.

70야드 거리에서 웨지로 때린 볼이 홀을 곧장 꽂히는 ‘덩크슛’ 이글이 됐다.

4번 홀까지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해 답답했던 흐름을 단숨에 바꾼 최혜진은 이어진 6번 홀(파4)에서 2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3타차 선두를 질주했다. 1타차 선두 자리로 돌아온 최혜진은 17번 홀(파3)과 18번 홀을 파로 막아내 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4언더파 68타를 친 유해란은 1타차 2위(11언더파 205타)에 만족해야 했다.

3타를 줄인 김효주(25)와 4언더파 69타를 친 장하나(28)가 공동 3위(10언더파 206타)로 대회를 마쳤다. 김효주는 상금왕과 다승왕(2승), 평균타수 1위를 확정했다. 첫날 홀인원과 7언더파 65타를 친 안송이는 코스레코드 상금(200만원)과 홀인원 부상인 6350만원짜리 벤츠 승용차로 아쉬움을 달랬다.

/연합뉴스

무등기 사회인야구, 이번 주말 ‘마지막 승부’

광일리그 결승 함평서 21일 오전 9시 ‘삼진 vs 청운에너지’
무등리그 결승 오전 11시 30분 ‘파트너스 vs 에어패스’

아로마라이프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

21일 무등기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지난 14일 함평야구장에서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6주 차 경기가 열렸다. 광일리그와 무등리그 준결승전이 전개되면서 결승 대진이 완성됐다.

무등리그에서 파트너스와 에어패스 파죽지세가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광일리그의 마지막 승부는 (주)삼진과 청운에너지의 대결로 압축됐다.

에어패스 파죽지세는 무등기 역대 우승팀 중 하나인 자연환경을 4-3으로 누르고,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2회 1점씩 주고받은 두 팀은 4회와 5회에도 똑같이 득점과 실점을 기록하며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파죽지세는 7회초 1점을 낸 뒤 7회말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다.

파죽지세의 선발 이창주가 7이닝 3실점의 완투승으로 수훈선수가 됐다.

파트너스는 카멋진넘을 12-9로 꺾고, 리그를 바꿔 대회 2연패에 도전하게 됐다.

1회초 5점을 폭발한 파트너스가 이어진 수비에서 역시 5실점을 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2회 3점을 더하며 분위기를 가져온 파트너스는 3회에도 4점을 보태 승기를 가져왔다.

지난해 광일리그 MVP 이영준이 승리투수가 됐다. 파트너스는 지난해에는 광일리그에서 ‘3전 4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었다.

청운에너지는 썬더스를 상대로 10-6, 역전승을 거두고 광일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1-0으로 앞선 1회말 청운에너지가 4실점은 했지만 2회초 대거 6점을 뽑으며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2회 등판한 김기정이 4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면서 마운드 싸움을 이끌었다.

썬더스의 선발 박건우는 마지막까지 마운드를 지켰지만, 팀의 패배에 아쉬움을 삼켰다.

(주)삼진은 뉴욕야시장과의 경기에서 8-4 승리를 거두고, 결승행 티켓을 차지했다.

두 팀이 1회부터 2점씩 주고받은 뒤 (주)삼진이 2회와 3회 1점씩 보태 4-2로 리드를 잡았다. 뉴욕야시장이 4회 4-4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5회초 (주)삼진이 4점을 폭발해 승리를 확정했다.

남준성이 선발로 나와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뉴욕야시장에게는 주전 포수의 부재가 아쉬웠다. 이날 뉴욕야시장은 8강에 이어 4강전을 연달아 치렀다. 뉴욕야시장은 1경기로 진행된 담양애와의 8강전에서 11-0, 4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선발 이만수가 3이닝 8탈삼진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고, 지현승은 8-0으로 앞선 4회말 콜드승에 마침표를 찍는 그라운드 홈런을 장식했다. 하지만 5경기에서 준결승전까지 치른 뉴욕야시장은 1경기 승리를 이끌었던 주전 포수의 부재 속 결승행에 실패했다.

한편 무등기 결승전은 오는 21일 함평야구장에서 치러진다.

오전 9시 광일리그 결승에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무등리그 결승전이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6주 차 전적]

◇무등·광일리그 준결승전

◆1경기 (4회 콜드)

담양애 0 0 0 0 - 0

뉴욕야시장 1 1 6 3 - 11

▲승리투수 : 이만수 ▲홈런 : 지현승(끝내기 그라운드 홈런)

◆2경기

에어패스 파죽지세 0 1 0 1 1 0 1 - 4

자연환경 0 1 0 1 1 0 0 -3

▲승리투수 : 이창주

◆ 3경기

파트너스 5 3 4 0 - 12

카멋진넘 5 0 3 1 - 9

▲승리투수 : 이영준

◆4경기

청운에너지 1 6 1 0 2 - 10

썬더스 4 1 0 1 0 - 6

▲승리투수 : 김기정

◆ 5경기

(주)삼진 2 1 1 0 4 - 8

뉴욕야시장 2 0 0 2 0 - 4

▲승리투수 : 남준성

대성초, 광주 초등야구 평정

추계대회 결승 서석초 9-8 꺾어

대성초가 2020 광주추계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대성초는 13일 본량구장에서 끝난 2020년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2회 청연한방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4연승을 달리며 우승팀이 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 학강초를 비롯한 7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전개됐다.

화정초·수창초·서석초·서림초가 A조에서 대결했고, 대성초는 학강초·송정동초와 B조에서 승부를 가졌다.

대성초는 학강초와의 첫 경기에서 14-1 승리를 거둔 뒤, 송정동초와의 경기에서도 14-3으로 연승을 기록했다.

12일 열린 화정초와의 준결승에서 5-1 승리를 장식한 대성초는 서석초와 마지막 대결을 벌였다. 대성초는 마지막 경기에서도 9-8로 이기면서 우승컵을 차지했다.

◇대회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 박승민(대성초) ▲우수투수상 : 송호진(대성초) ▲타격상 : 전민우(12타수 8안타·0.667·대성초) ▲최다도루상 : 오유준(8개·서석초) ▲최다타점상 : 안상훈(9타점·대성초)▲감투상 : 김재원(서석초) ▲미기상 : 손원호(서석초) ▲감독상 : 신경호 감독(대성초) ▲지도상 : 정미숙(대성초 부장)

/김여울 기자 wool@

대성초가 지난 13일 본량구장에서 끝난 추계초등학교 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